| 주가 | 환율 | 금리 |
|---|---|---|
| -10.52 | +5.00 | +0.05 |
| 1,251.67 (코스피지수) | 961.20원 (원/달러) | 4.94% (3년만기 국고채) |

| | | |
|---|---|---|
| 코스닥지수 | 578.11 | (-8.97) |
| 다우(16일) | 11,014.55 | (-0.64) |
| 나스닥(16일) | 2,129.95 | (-14.20) |
| 닛케이 | 14,860.35 | (-18.99) |
|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 115.62엔 | (+0.38) |
| 유로 달러 환율 | 1.2592달러 | (-0.36) |
| 3년만기 회사채 | 5.21% | (+0.05) |
| 콜금리 | 4.20% | (+0.01) |

## 아파트 시가총액 광주·전남 24조5,000억 〈 서울 강남구 100조

# 지방-수도권 격차 심화

### 강남 1년새 40% 급등…광주는 14%·전남 4% 상승 그쳐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총액이 100조원대를 넘어선 것을 비롯 서울과 수도권지역 대부분의 지자체 아파트 총액이 광주·전남의 총액을 크게 상회하는 등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종합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광주·전남 31만1천851가구의 아파트 총액은 24조4천9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전남 총액 21조9천417억원보다 11%(2조5천506억원) 증가한 것으로 강남구 아파트 100조2천296억원의 24.4% 수준이다.

광주의 아파트 총액은 18조4천8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조1천622억원보다 14%(2조3천229억원) 늘었다. 구별로는 광주 북구가 5조9천3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5조7천511억원 ▲남구 3조1천456억원 ▲광산구 2조6천866억원 ▲동구 9천66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 6조72억으로 지난해 5조7천795억원보다 3.9%(2천277억원) 증가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최근 1년새 39.8%(28조5천202억원)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강남구의 경우 광주·전남 아파트의 30% 수준인 9만5천855가구에 불과하지만 올들어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세를 바탕으로 또다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강남 서초구와 성남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각각 58조2천426억원, 65조5천869억원에 달하면서 광주·전남 총액을 크게 상회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시가총액은 900조8천300억원으로 전국 총액 1천239조4천억원의 72.7%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 수는 271만가구로 전국 567만가구의 47.8%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5조1천5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95조6천885억원 ▲부산 62조5천263억원 ▲인천 52조6천900억원 ▲대구 46조8천356억원 ▲경남 34조4천792억원 ▲대전 32조8천707억원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지역별 아파트 시가 총액

| | |
|---|---|
| 서 울 | 505조1천537억 |
| 강남구 | 100조2천296억 |
| 경 기 | 395조6천885억 |
| 부 산 | 62조5천263억 |
| 대 구 | 46조8천356억 |
| 경 남 | 34조4천792억 |
| 대 전 | 32조8천707억 |
| 광 주 | 18조4천851억 |
| 전 남 | 6조72억 |
| 충 남 | 17조8천566억 |
| 울 산 | 13조6천643억 |
| 전 북 | 12조9천505억 |
| 강 원 | 9조6천513억 |

## 한국산학협동硏 '1사1교수' 초청 간담회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원장 박성수)은 최근 시내 음식점에서 (주)나영산업 고정주 사장과 최기 교수(동강대학)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1교수'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낙현(주) 용완건설 사장과 경영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이상수 호남대 교수가 각각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주)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나눔 실천'

(주)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의 아모레카운셀러(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들은 지난 17일 '아모레카운셀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03년 출발한 이 행사는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뿐만 아니라 카운셀러들에게도 재활용과 나눔의 소중함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를 통한 판매수익금을 사회의 그늘진 곳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올해 행사지역은 광주·서울 등 7개 지역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에 진행됐으며 모두 2만5천여점의 기부물품이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됐다.

아모레카운셀러는 현재 전국적으로 3만2천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객은 300만명에 달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하우스밀감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로회복에 좋은 하우스밀감을 100g당 7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전남 5월중 부도업체 13개사

### 14개월만에 최저치…어음부도율도 0.41%로 줄어

광주·전남지역 부도업체수가 1년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5월중 부도업체수는 13개로 지난해 3월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5월중 어음부도율도 0.41%로 전월(0.81%)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부도금액도 138억원으로 전월(263억2천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5월중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수가 급감한 원인은 지난 3월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여파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도업체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개사로 전월에 비해 3개 감소했으며 제조업도 3개로 2개가 줄어들었다.

한편 5월중 광주·전남지역의 신설 법인수는 187개로 전월(175개)에 비해 12개가 늘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조합에 허위·과장 부당광고 시정명령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부당 광고를 한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조항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은 매월 동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일반상가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혐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보해, 교통사고 당한 직원 구출
## '의인' 미군 병사 3명에 감사패

### 복분자주 300병도 전달

주한미군 병사가 한국인 교통사고환자를 재빨리 응급처치, 직원에게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패가 전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지난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육군 창설 231주년 기념식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빠른 응급처치를 펼친 주한미제8군 병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복분자주 300여병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에는 주한 미8군 사령관인 밸코트(David P. Valcourt) 중장이 배석하여 보해양조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보해양조에 몸담고 있는 김대성(50)씨는 지난 1월 19일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전복되고 말았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주한미군 폭발물처리반의 로버트 웰스(31)중사, 애덤 고메스(20) 일병 등 3명이 이를 발견하고 헌신적인 응급처치를 펼쳤다.

이들은 뒤집힌 차량에서 와이퍼를 뜯어내 다리 부목으로 사용했으며, 쇼크상태인 김씨의 출혈을 막고 기도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 2개월 동안 입원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김씨와 보해측은 주한미제8군 공보관실에 연락, 로버트 웰스 중사의 부재를 파악하고 지난 6월 5일 주한미군을 방문했다. 보해는 이날 한국의 전통와인 '보해 복분자주'(375ml) 600여병과 복분자주 자기세트(500ml)를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만남은 미군측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어 AFKN에서 전 과정을 취재하기도 했다.

이에 미군측은 지난 16일 열린 미육군 창설 231주년 기념파티에 김씨 부부를 초청했으며, 기증한 보해 복분자주는 기념 파티 만찬주로 사용하기도 했다. 보해 또한 로버트 웰스 중사 등 도움을 준 주한미군병사 3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월 초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7장의 사진이 올려지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진위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